

Online Series

2020. 8. 12. | CO 20-18

코로나 19 충격과
북한경제

홍 제 환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강력한 제재 하에서도 북한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지 않고 그럭저럭 버텼다. 하지만 올해 들어와 코로나 19 충격으로 인해 북·중무역이 급감하고, 주민들의 사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하여 북한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경봉쇄 조치를 완화하여 5월 이후 식료품을 중심으로 수입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코로나 19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이러한 정책을 지속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코로나 19 충격으로 인한 경제 상황의 악화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 19 국면이 종료된 이후 북한경제는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는 있겠으나, 제재 하에서 나타난 외화보유고 감소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중간재·소비재 수입 감소로 인해 코로나 19 사태 하에서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 또 다시 봉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세계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가 예상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올해 초 세계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던 세계은행이 지난 6월 성장률 전망치를 -5.2%로 대폭 하향조정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북한 역시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방역 체계의 취약성을 우려해 국가 간 인적 왕래뿐만 아니라 물적 교류도 차단한 탓에 충격의 여파가 더 클

수도 있다. 더구나 이미 수년째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어 경제의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이다. 북한경제가 제재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온 코로나 19 국면을 잘 버텨내고 있을까. 이를 검토하려면 먼저 제재 하 북한경제 상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재 하에서 그럭저럭 버텨 온 북한경제

강력한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7년 하반기부터다. 2017년 8월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의해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 철광석, 수산물 등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 데 이어, 9월에는 결의 2375호에 의해 북한으로의 유류 공급에 제한이 가해지고, 북한의 섬유류 수출 및 해외 노동자 신규 파견이 금지되었다. 이어 12월에는 결의 2397호에 의해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수위가 한층 강화되고, 북한에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금속류 등을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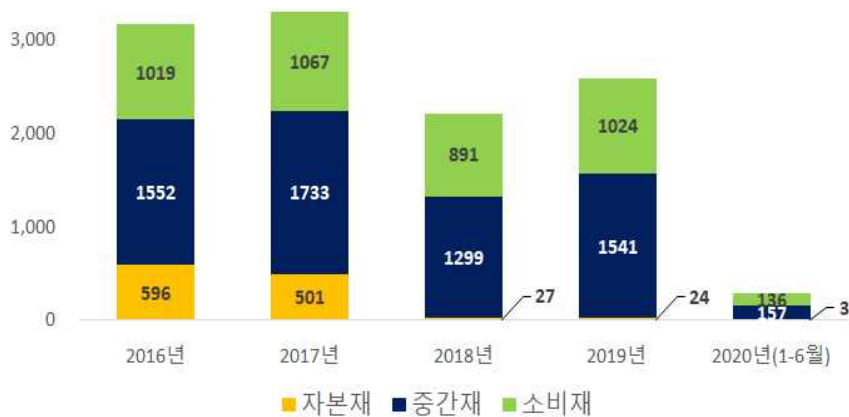
제재 조치의 강화는 생산 감소로 이어졌다. 주력 수출품의 수출이 금지됨에 따라 대중수출이 2016년 26.3억 달러에서 2017년 16.5억 달러, 2018년 2.0억 달러로 급감했던 탓에, 광업·경공업 등 수출 주력 부문을 중심으로 생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의 추계에 따르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2017년(-3.5%)과 2018년(-4.1%) 2년 연속 감소했다. 그래도 제재 대상이 아닌 중간재의 수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에, 생산의 급격한 위축은 피할 수 있었다(<그림 1> 참조). 시장과 사경제(private sector) 활동의 발전, (밀무역 등을 통한)제재의 부분적 회피 등도 생산 감소폭을 줄이는 데에 일조했을 것이다.

그런데 2019년에는 북한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피, 현상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추계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의 국내총생산은 0.4% 증가하였다. 수출이 이미 예년의 1/10 수준으로 줄어든 탓에 수출 부문의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이 크지 않았던 데에다,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수입이 예년 수준으로 이루어졌고, 기상 여건이 나쁘지 않아 농업 생산이 양호했다는 점 등이 그 원인이다.

제재는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2019년까지는 생산 부문에 비해 소비 부문이 받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다. 가전제품 등 일부 내구 소비재를 제외한 소비재 대부분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재 수입이 제재 하에서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결과다. 따라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제재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북한의 대중수입의 용도별 분류, 2016~2020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http://stat.kita.net/stat/istat/CtsMain.screen>).

주 1: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액은 제외되어 있음.

주 2: 2020년은 1~5월 기준임.

주 3: 자본재·중간재·소비재는 UN Trade Statistics(<http://unstats.un.org/unsd/tradekb/Knowledgebase/50090/intermediate-Goods-in-Trade-Statistics>)를 참고하여 분류함.

이렇듯, 강력한 제재 하에서도 북한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지 않고 그럭저럭 버텨왔다. 하지만 무역적자 급증에 따른 외화보유고 급감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그림 2〉 참조). 제재 본격화 이후 수출이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재와 무관한 중간재, 소비재의 수입이 지속된 결과다. 북한이 이러한 무역적자를 장기간 버텨낼 만큼 외화보유고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¹⁾ 이는 북한경제에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코로나 19 충격이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한 북한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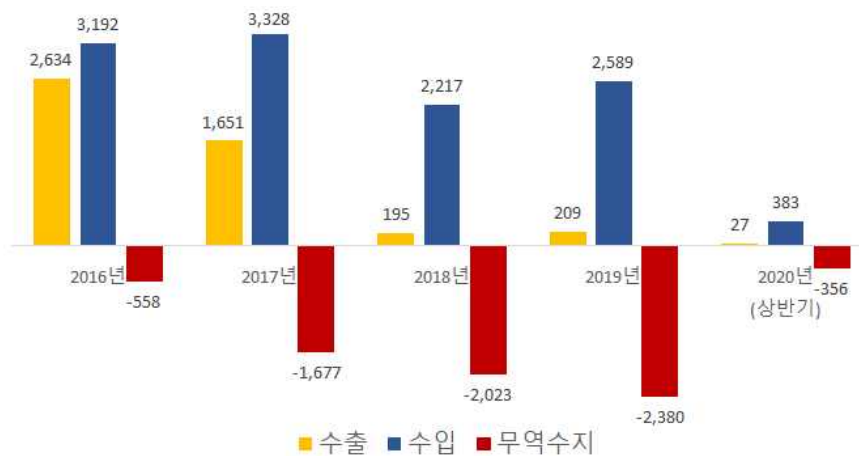
2020년 1월 말 북한은 코로나 19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 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방역 체계의 취약성을 우려해,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국가 간 인적 왕래뿐만 아니라 물적 교류도 차단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 19 국면이 장기화됨에 따라 북한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중무역이 크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경 지역 감시가 강화

1) 장형수·김석진, “북한의 외화수급 및 외화보유액 추정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시사점,” 『현대북한 연구』, 제22권 제1호 (2019).

됨에 따라 밀무역도 위축되었을 것이며, 중국 관광객 유치도 중단된 상태다.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시장거래와 주민들의 사경제 활동도 위축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 이 역시 북한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림 2> 북한의 대중무역 추이, 2016~2020

(단위: 백만 달러)



자료: 2016~2019년은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http://stat.kita.net/stat/istat/CtsMain_screen), 2020년은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북한통계(<http://research.ibk.co.kr/research/board/statistics/list>).

주 1: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액은 제외되어 있음.

주 2: 2020년은 상반기 기준임.

북한 입장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히 북·중무역 감소가 뼈아플 것이다. 북·중무역의 추이를 나타낸 <그림 2>를 보면, 2020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수출은 2,737만 달러, 대중수입은 3억 8,332만 달러인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5.3%, 33.5%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대중수출은 이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작아져 있으므로, 1/4 수준으로 감소해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대중수입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수입이 급감한 결과, 2020년 1~5월 사이 중간재와 소비재의 수입은 각각 1억 5,670만 달러, 1억 3,580만 달러로 전년 연간 수입액 대비 10.2%, 13.3%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반기 수입이 증가한다고 해도, 올해 중간재와 소비재의 수입 규모가 예년 수준을 크게 밑돌 가능성이 높다.

앞서 강력한 제재 하에서도 2019년까지 북한경제가 급격한 위축을 피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중간재와 소비재의 수입이 위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코로나 19 충격 속에 중간재와 소비재 수입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재고를 활용하거나 국내 생산으로 대체한다고 해도 북한의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품목은 수입 감소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이는 결국 생산과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코로나 19 사태가 현재 북한경제에 얼마나 충격을 주고 있을까.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이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북·중무역의 감소가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간재 및 소비재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북한 내 재고 수준, 국내 생산을 통한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실태를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지 6개월이 경과되었고, 대부분 품목의 수입 감소폭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생산과 소비 모두에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농업 부문을 예로 들어 보자. 2020년 상반기 북한의 비료 수입액은 총 438만 달러인데, 이는 전년 상반기 수입액 4,082만 달러의 1/9 수준에 불과하다.²⁾ 북한이 자체적으로 비료를 생산, 조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고를 소진한다고 해도 이러한 부족분을 메우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는 결국 올해 북한 농업 생산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대중수입 감소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면, 대중무역 봉쇄 정책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펴나가는 무리다. 북한 당국도 이를 고려해 5월 이후 봉쇄 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4월 2,180만 달러에서 5월 5,856만 달러, 6월 8,768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보아도 3·4월에는 10% 수준이었으나, 5월 22.7%, 6월 41.2%로 갈수록 회복되는 양상이다.

수입의 증가는 식료품에 집중되어 있다. <표 1>은 2020년 5월 북한의 10대 대중수입 품목을 전년 동월과 비교해 놓은 것이다. 2019년의 경우, 대두유, 쌀, 사탕수수당과 같은 식료품도 있지만,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시계 부품, 비료, 뜨개질 니트, 타일과 같은 산업용 자재가 많았다. 반면 2020년에는 대두유, 밀가루, 팜유, 사탕수수당 등 식료품이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다른 품목과 달리 모두 전년 동월에 비해 수입 규모가 크게

2) “북한, 비료 수입 1년만에 9분의 1로…대체 무슨 일이,” 『연합뉴스』, 2020.8.4., <<http://www.yna.co.kr/view/AKR20200804052200504?input=1195m>> (검색일: 2020.8.6.).

증가하였다. 5월 이후 관찰되는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큰 틀에서 봉쇄정책은 지속하되, 식료품과 같은 중요 소비 물자에 대해서는 수입 허용 규모를 늘리기로 했음을 시사한다.

<표 1> 북한의 10대 대중수입 품목 비교

(단위: 천 달러, %)

순위	2019년 5월			2020년 5월			
	HS 코드	품목명	수입액	HS 코드	품목명	수입액	수입증가율 (전년 동월 대비)
1	5407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18,557	1507	대두유	15,257	64.3
2	3102	질소비료	17,737	1101	밀가루	9,453	142.0
3	1507	대두유	9,285	1701	사탕수수당	5,928	43.8
4	9114	시계 부품	7,650	1511	팜유	4,019	221.5
5	1302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6,878	2403	담배	3,378	-10.7
6	3105	광물성 비료 및 화학비료	6,808	2922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	2,149	-14.5
7	6006	뜨개질 니트	6,205	2402	시가(cigar), 켈런	2,032	-28.8
8	1006	쌀	5,163	4011	타이어	1,786	-47.1
9	6907	타일	4,991	3004	의약품	1,641	-55.7
10	1701	사탕수수당	4,123	3920	플라스틱 판	954	-66.2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http://stat.kita.net/stat/istat/CtsMain.screen>).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도 북한경제 전망은 밝지 않아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방역과 경제난 극복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북한은 대내적으로 자력갱생 등을 내세워 생산을 독려하면서, 대외무역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큰 틀에서 봉쇄정책을 유지 하되 중요 소비 물자를 중심으로 수입을 늘려가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코로나 19 사태 하에서 북한경제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북·중무역이 다소 회복되더라도 중간재·소비재 수입 규모는 여전히 예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농업, 건설업, 경공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생산 및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민들의 사경제 활동도 코로나 19 사태가 종료

될 때까지 위축된 상태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 주민 중 상당수가 사경제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주민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국가재정이 매우 취약한 탓에 북한 주민 대부분은 경제적 충격에 직면하더라도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이는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 19 사태가 종결된 이후에도 북한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는 데에 있다. 코로나 19 사태가 종결된 이후 북·중무역이 2018~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주민들의 경제 활동이 보다 활성화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강력한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다. 코로나 19 사태가 종결되더라도 앞서 언급했던, 무역적자 증가에 따른 외화보유고 감소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미 핵협상 진전 등을 통해 제재의 완화 내지 해제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외화 부족으로 인해 머지않아 북한의 중간재·소비재 수입 규모가 다시 크게 감소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은 코로나 19 사태 하에서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변수는 존재한다. 3월 발간된 UN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불법적으로 석탄을 수출하고 있으며, 밀수입을 통해 UN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서 규정한 상한 이상의 정제유를 수입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모두 북한으로 돌아갔어야 하는 해외노동자 중 일부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다.³⁾ 최근 일본 NHK, 영국 로이터통신 등이 입수해 보도한 미공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제재의 구멍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중국이 대북 경제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북한경제가 처한 난관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조치들은 제재 하에서 위기에 직면한 북한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충격을 극복하더라도 대북제재라는 더 큰 산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 첩첩산중에 처한 북한경제의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KINU 2020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3)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 (2009)*, S/2020/151, 2 March, 2020, pp. 4-5.